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총아 'DOI'

김병준 |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책은 지난 1500년 동안 형태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서적(e-book)이 등장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종이책 시장을 위협하리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 출판계는 아직 전자서적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자서적이 기존의 출판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출판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대응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전자서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자서적에 담을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제공하는 데 출판사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자서적은 인쇄매체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뉴미디어시대 출판산업의 모습이다.

'출협'이 국제 DOI재단(IDF)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란 디지털 저작물, 즉 도서·사진·음악·이미지·영상 등에 대해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유통시킬 때 전자문서카탈로그(Metadata)에 올려 저작자의 해당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연결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한 저작권 거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DOI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리에 요긴하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거래정보 및 이에 대한 갱신기록까지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어 별

도의 기록 및 관리체계가 필요치 않다. 단지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문제에서만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감시체제를 별도로 운영한다. 다시 말해서 DOI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문서를 손쉽게 확인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본격적인 전자상거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DOI를 통한 디지털 문서 전자상거래가 실현될 경우, 저작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 재산권 보호가 쉽고 웹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시켜 새로운 저작물을 손쉽게 창작할 수 있다. 출판사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 유통의 유료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 이용도를 늘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계체제를 통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도 불법적인 복제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 문서의 특성상 내려받은 문서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